

□ 난임의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 현황

-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되며, 난임 여성들은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의 정서적 고통과 상실감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위축을 겪고 있음.
- 체외수정 시술경험 여성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5년 자료),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86.7%\*로 심각한 수준이며,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응답자의 26.7%\*에 달함
- 난임 대상자의 고통화로 자연 유산 및 반복 유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산 전·후에 부부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하여 이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지를 즉시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향나미 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6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 난임 시술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체외수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임진단자수	211,575		214,588		221,261	
난임시술여성의 평균연령	35.6	34.4	35.6	34.6	36.3	34.6
시술건수	40,555	35,210	47,745	36,415	52,689	34,801
난임시술 출생아 수	11,597	4,039	13,779	5,324	14,373	5,363
난임시술 임신율(%)	32.4	13.5	31.5	14.3	29.6	13.9
정신적·심리적 고립감, 우울감(%)	59.6	57.0	86.7	85.3	-	-
자살에 대한 생각(%)	13.7	10.4	26.7	21.7	-	-
시술여성의 정서심리 상담서비스 이용경험(%)	1.0	0.8	4.1	2.9	5.5	3.8
정신건강복지센터(242개)의 산전·후우울증상담(인원/건수)	-	-	5,263명 / 9,083건		7,578명 / 10,783건	

□ 산후 우울증 및 치료 현황

-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10~20%가 경험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영아 살해 후 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확한 유병률 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은 미비함.
- 해외 역학조사에 따르면 임신부의 25~35%가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7~13%가 경도 또는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신 기간이 우울증의 호발 시기라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산후우울증의 유병률을 10~15%로 추정할 때, 치료받는 환자는 약 1% 미만으로 치료율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어 산후우울증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대한정신건강재단, 「2015 산후우울증 영역연구」 등

□ 산후 우울증 치료 현황

분만 연령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F53, F3	분만인 수	F53, F3	분만인 수	F53, F3	분만인 수	F53, F3	분만인 수	F53, F3	분만인 수
소 계	2,943	423,722	2,832	424,098	3,016	428,001	3,372	398,673	3,296	323,023
15~19	21	1,672	25	1,579	24	1,267	22	1,208	19	810
20~24	213	18,856	176	18,101	200	17,748	227	16,109	206	12,016
25~29	565	86,677	510	82,925	553	81,161	585	74,586	588	58,670
30~34	1,312	217,836	1,280	213,972	1,246	208,778	1,414	185,296	1,286	142,457
35~39	679	84,995	677	92,959	797	103,619	957	105,686	981	94,151
40~44	142	13,258	154	14,091	185	14,946	158	15,217	204	14,378
45이상	11	426	10	471	11	482	9	571	12	541

\* 연도별 출산후 6개월 내 산후우울증 혹은 우울증을 포함한 기본장애로 상병코드 F53(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후기 정신 및 행동장애) 및 F3계열(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병등)이 부여된 사람 수

□ 출산(주산기) 시기별 우울증 선별자 비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산후 1달
주산기 우울증 선별자(%) (한국기준 : EPDS 10점 이상)	18.6%	11.5%	12.6%	15.3%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4 임신관련 합병증 유병율 조사 및 위험인자 발굴」 연구
- \* EPDS : 에딘버러 산후우울증 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최근 일주일 동안 산모의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10개 질문에 대하여 답안별 점수를 부여하여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
- \* 주산기 우울증 선별자(에딘버러 산후우울증 척도 10점 이상)의 비율은 임신 1분기에서 1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후 1달 시점으로 15.3%임.